

“고물상 부지 개발허가 불허 너무합니다”

‘푸른자원’ 임경태씨 하소연 ... 고성군 ‘주변 건축물과 조화 이뤄야 한다’는 규정 위반

거진을 봉평리 거진하수종말처리장 옆에서 ‘푸른자원’이라는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는 임경태씨(48세, 사진)가 고성군이 추진하는 체육시설 때문에 다른 곳으로 사업장을 옮기기 위해 부지를 마련했으나, 군이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지 않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임씨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여름 고성군으로부터 인근에 체육부지와 주차장이 들어설 계획이니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난해 9월 거진을 송죽리 일대 임야 6천여평을 구입했다.

이후 임씨는 이곳으로 고물상을 이전하기 위해 고성군에 개발행위 허가 민원을 제출했으나, 고성군은 결정을 미뤄오다 최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를 근거로 개발행위 불허가 통보를 해왔다.

고성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개발행위 허가로 인한 건축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와 형태 및 색채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근거를 불허가 이유로 들었다.

고물상이 들어설 지역 주변에 식품공장이 6개가 존치한 상태고, 깨끗하고 청정한 이미지를 중요시하는 식품공장 주위에 고물상이 들어서지는 것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씨는 이런 처분을 받

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씨는 “그런 기준을 갖다 대면 세상에 개발행위가 허가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에 있겠느냐”며 “군에서 이전을 하라고 해서 은행 대출을 받아 부지까지 마련했는데, 이제 와서 안된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고 하소연했다.

그는 “행정을 처리하면서 힘 있는 사람들은 봐주고 힘 없는 사람은 영똥한 규정을 들어 어떻게든 안 해주려고 하니 힘 없는 사람으로서 억울하기만 하다”며 “개발행위불허가 처분에 항의해 ‘행정심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고성군 관계자는 지난 13일 “레미콘공장이 들어서지는 지역은 주변에 건물이 전혀 없고



‘푸른자원’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는 임경태씨가 고성군이 추진하는 체육시설 때문에 다른 곳으로 사업장을 옮기기 위해 부지를 마련했으나, 군이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지 않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아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었다”며 “고물상 부지는 주위에 식품공장이 있어 주변건물과 조화가 안되고

인근 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돼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산업폐기물 불법 매립 60대 검거

고성경찰서, 00수산 대표 ... 처리비용 절감 위해 3회에 걸쳐 불법 매립

자신이 운영하는 수산회사에서 발생한 수산물 찌꺼기 및 포장용기 등 사업장 폐기물과 수산물가공처리 작업장에서 발생한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을 회사 뒤편 공터에 무단으로 매립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고성경찰서는 지난 11일 고성지역에서 수산물가공처리업과 폐기물재활용업을

하는 00수산의 대표 조00씨(66세)를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회사 뒤편 공터(약 25평)에 불법 매립하거나 투기한 혐의에 대해 입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2월 초 순경 자신이 경영하는 00수산 내 폐기물재활용 작업장에서 발생한 수산물 찌꺼

기 및 폐 포장 용기 등 사업장폐기물 약 1톤과 수산물가공처리 작업장에서 발생한 폐 아스콘, 폐 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 약 7.7톤의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회사 뒤편 공터에 굴삭기를 이용해 3회에 걸쳐 무단 매립하거나 불법으로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성경찰서는 조씨가 경영하는 00수산 뒤편 공터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는 제보를 받고, 굴삭기를 동원해 산업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확인한 후 조씨를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입건하는 한편 추가 범행이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수사하고 있다. 최광호 기자

속초소방서·의료원 업무협약



속초소방서(서장 최민철)와 속초의료원(의료원장 한현)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에 기여하고 상호 긴밀한 업무 협력을 통해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0일 오전 11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두 기관은 협약식을 통해 지역소방전문협력병원 지정을 통한 소방관의 건강상담 및 외상후 스트레스(PTSD) 관련 교육 실시, 전문가 상담 치료 지원 및 정보 교류 등 상호 업무 지원을 하게 된다.

최광호 기자

고성군재향군인회 정기총회 공고

고성군재향군인회(회장 이행관)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여성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12년도 제50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11년도 회계결산, 201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2012년도 추가정정예산심의 의결권 이사회에 위임, 임원개선, 지역대표선출 등 5개 의안을 다룬다. 최광호 기자

광고·구독 문의
TEL. 033-681-1666~7

지난해 해양오염사고 소폭 감소

녹색서포터즈 실천운동 오염사고 크게 줄어

지난해 동해안 영북지역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와 기름 유출량이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속초해양경찰서(서장 김흥희)는 2011년 한 해 동안 영북지역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는 총 10건에 유출량은 810L로, 2010년의 12건, 891L 대비 발생건수는 16.7%, 유출량은 9.2%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경은 해양오염사고와 유출량 모두 감소한 것은 수협 등 선박의 기름 공·수급과정에서 안전관리 철저와 해양종사자의 해양환경보전 의식향상, 오염사고 발생 시 민간자율방제대의 신속한 오염원 차단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해양오염사고의 원인별로는 부주의 4건, 해난사고 4건, 그의 1건, 기타 1건(차량 해상추락)으로 집계됐다.

오염원별로는 어선 7건, 육상 3건으로 대부분의 오염사고가 어선에서 발생했으며, 시간대별로는 항내 그물작업이 활발한 오전 8시부터 낮 12시 사이에 집중됐다.

한편, 속초해경은 부주의와 운항 중 관리소홀에 의한 해양오염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해 해양종사자와 어업인을 대상으로 현장계도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원광연 기자

학교폭력 근절 대책회의 개최

고성경찰서



전국적으로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고성경찰서는 지난 9일 열린마루에서 간부급 직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홍순광 경찰서장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 다소 소극적으로 대처해 온 면이 있었다”면서 “이제부터라도 학생 및 학부모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 경찰관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경찰활동을 전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홍서장은 특히 학교폭력이 주변에서 늘 발생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부서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선제적 경찰활동을 전개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유관기관 및 협력단체 등을 적극 활용해 학교·공원·PC방 등 취약장소 연계 순찰을 강화하는 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